

남녀 쌍둥이 중학생 일상으로 본 성차별 현실

광산구·호남대 성평등 그림책 '다녀왔습니다' 출간...광산구 홈페이지 '공공누리' 등록으로 누구든 이용 가능...유튜브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

일란성 남녀 쌍둥이 중학생 지호와 지민이가 각각 겪은 같은 듯 다른 평범한 하루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현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성평등 그림책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와 호남대학교는 공동협력을 통해 그림책 '다녀왔습니다'를 출간했다.

28쪽으로 구성된 그림책은 남학생 지호와 여학생 지민이가 아침에 집을 나서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각각 좌우 면으로 나눠 보여준다.

그림책에선 '남자라면 (급식을) 이 정도는 먹어야지, 여자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체육시간) 남학생들은 축구..., '여학생들은 피구나...' 등 다른 성 고정관념을 강요받는 중학생의 일상이 그려진다.

또 어두운 저녁 귀가시간 '(남학생) 지호는 천천히 걸어갑니다'와 '(여학생) 지민이는 조금 서둘러 걷습니다'를 한 화면에 보여주기도 한다.

'다녀왔습니다' 그림책의 주제와 구성, 주요장면 연출 줄거리 작업 등에는 호남대 동아리 'ODA Gada' 학생 30여명이 주축이 됐고, 장윤경 호남대 간호학과 교수와 노미숙 그림책 전문가, 신혜연 광

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힘을 보탤다.

이번 그림책 출간은 광산구와 호남대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사업' 중 하나로, 2016년 9월 두 기관의 공동협력 체결과 함께 시작했다.

'다녀왔습니다' 출간에 앞서 광산구와 호남대는 구강보건 그림책 '미스터 브러쉬브러쉬'를 9개 언어로, 손 씻기 위생교육 그림책 '베니의 비밀'을 4개 언어로 각각 제작했다. 호남대 학생을 비롯한 지역 대학생들은 2017년부터 이 책들을 들고 필리핀·베트남·페루·몽골·캄보디아 등 9개국을 방문해 해외 위생교육 봉사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2018년 2월 이 그림책들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로 불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등록해 출처 표시만 하면, 누구나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0월 서울시는 '미스터 브러쉬브러쉬'를 저소득가정 보건교육 교재로 채택했다.

'다녀왔습니다'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됐고,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광산구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광산구는 현재 학교·마을 보급,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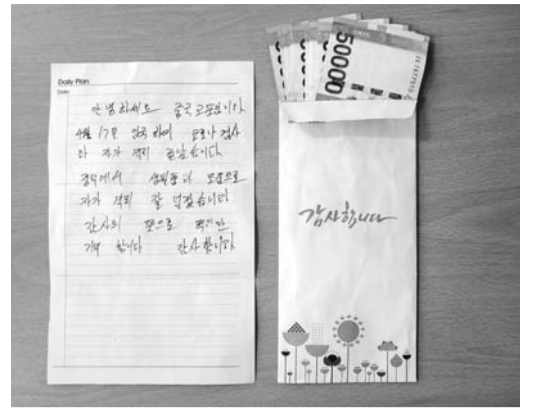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와 호남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세계시민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에 나선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

부처 공모사업 연결 등 다양한 그림책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소년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중요

하다"며 "무심코 지나치고 외면했던 일상의 차별과 고정관념들을 돌아보는 교육의 장에서 그림책이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생필품 등 여러번 도움으로 자가격리 잘 넘겼습니다"
중국 교포, 광산구에 감사의 편지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마친 익명의 중국교포가 최근 광산구청을 방문해 1층 안내가운더 직원에게 손 편지와 함께 현금 50만원을 기부했다.<사진>

이 중국 교포가 전한 손 편지에는 "중국교포입니다. 4월17일 입국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 격리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생필품과 도움으로 자가 격리 잘 넘겼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적지만 기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같은 날 광산구 송정동의 한 학생도 광산구 안전관리과에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전해달라며, 자기 용돈으로 구입한 마스크 33개를 전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의 정성이 담긴 기부품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기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화생방 사고 미리 대비합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일 광산구 쌍암동 119특수구조단에서 8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합동대응반' 구성·운영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일제 점검

6월26일까지 12곳 대상 안전관리·면지저감 대책 등...코로나19 예방·안전도

광주시가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도로, 하천, 아파트, 건축물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며,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11곳과 6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가시성 등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시공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상태 ▲비산먼지 저감 대책 등 환경관리 상태 ▲우기철 대비 공정관리 계획 ▲교통처리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방안, 예방수칙 이행여부 등도 지도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수·보강과 함께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7월까지 162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실효성 높인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사후 입법평가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돼 2년이 경과한 조례 중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조례를 제외한 162개다.

이번 평가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평가용역을 의뢰해 추진한다. 충실한 평가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조례 소관부서 협업회의 등에서 11개 평가기준별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평가 용역수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광주 광산구는 "근로여건 향상, 기업 생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취지로 '2020년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가기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은 작업환경, 근로환경, 작업안전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작업환경분야는 바닥·천장·벽면·LED조명·적재대 등 작업환경시설의 개·보수를, 근로환경분야는 화장실·식당·기숙사·샤워실·휴게실 등의 설치와 개

·보수를, 작업안전분야는 분진·유해물질 제거 국소배기장치와 바닥공사 등을 각각 지원한다.

광산구는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가희망 기업은 광산구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광산구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960-3877)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